

#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배수 압축”

임실 한완수·무주 황의탁·진안 전춘성·고창 심덕섭 등 단수공천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송지용 도의회 의장 등은 ‘컷오프’  
 민주 도당 윤준병 공천위원장 “선두권 후보 다수 배제, 도민 눈높이 맞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론 조사 상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예비 후보들이 다수 경선에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윤준병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8일 공천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배수를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도내 민주당 14개 시·군 단체장 경선은 단수공천지역이 4곳, 2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2곳, 3인 경선지역이 5곳, 4인 경선지역이 3곳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배수압축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원주)·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등이 공천 배제됐다.

윤 위원장은 공천위가 현역 단체장 2명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한 후보 다수를 배제시킨 것은 도당 공천위가 전북 도민들의 높은 눈높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에 맞춰 도덕성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춘성 진안군수와 무주군수 선거에 나선 황의탁 도의원, 한완수 도의원이 입실군수 후보로, 심덕섭 진

국교보훈처 차장이 고창군수 후보로 각각 단수 추천됐다.

3인 경선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이다.

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경선은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3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군산시장 경선은 강임준 현 군산시장,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서동성 전 호원대 교수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익산시장 경선은 정현을 현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이 자웅을 겨룬다.

정읍시장 후보는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최민철 지역위 부위원장 등 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순창군수는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장종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최기환 전 순정축협장이 3파전으로 승부를 겨룬다.

2인 경선은 남원시와 장수군 등 2곳

이다. 남원시장은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컷오프되면서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파전으로 승부를 겨룬다.

장영수 현 군수가 중도 탈락한 장수군수는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최홍식 민주당 전북도당 동부권활성화 특별위원장이 맞대결을 펼친다.

4명의 예비 후보가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은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 등 3곳이다.

김제시장은 박준배 현 김제시장, 구형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국장, 정성주 전 김제시의장,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4명이 대결을 벌인다.

완주군수는 국영석 전 고산농협조합장, 두세훈 전 전북도의원,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 이준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 등 4파전으로 압축됐다.

부안군수는 권익현 현 부안군수와 김상곤 민주당 김제부안농어민위원장, 김종규 전 부안군수,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경쟁하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한편 공천 대상에서 탈락한 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은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에게서 저를 지지해 주시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더 큰 전북 발전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통합·혁신 전북 대도약”

송하진 지사 일부 지지자들, 김관영 예비후보와 합세  
 “송 지사 도정 계승 적임자… 남겨진 사업 충실히 이행”

“통합과 혁신을 통해 전라북도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에게서 저를 지지해 주시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더 큰 전북 발전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송 지사가 지난 8년 간 전북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남겨 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송 지사의 도정 계승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하진 지사님의 도정 성과가 온전히 도민들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는 후보는 김관영 후보라고 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송 지사 측근인 허광, 정호윤, 장병규, 고선영, 김연근 이상일, 엄경영 씨와 고성재 전 비서실장, 한민희 전 대의협력

국장, 이형렬 전 홍보기획과장이 함께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겠다”면서 “혹여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추가해 청출어람 하는 전북도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 지사님께서 당부하신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답고 안전한 고장, 모두가 힘 모아 과학기술을 일으키며 100년 먹거리, 산업경제를 혁신하며, 따뜻한 정을 느끼는 고장을 저 김관영이 도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덧붙여, “경제와 민생 중심의 도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젊은 경제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는 하나 된 전북, 새로운 전북, 변화되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배수개선

### 695억원 확정

이원택 의원 “영농환경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9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35개 지구(계속사업 23개·신규



최수지구 12개)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6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김제 대창지구 등 12개 지구는 올해 살계비 등으로 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이들 12개 지구에는 향후 1,800억의 예산이 투입돼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예산 50억), 김제 용신지구(예산 50억), 부안 계화지구(예산 40억), 부안 동진지구(예산 50억) 등이며, 부안 신환지구와 김제 평사지구에도 각각 17억, 20억이 편성되어 이 2개 지구는 올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난봉지구와 석담지구에도 각각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정읍 석우지구, 정읍 용흥지구, 순창 유등지구, 남원 세전지구, 군산 허리지구, 고창 갈남지구, 익산 동연지구, 전주 도도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580억)이며,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는 김제 광활지구, 부안 활포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269억)가 선정되었다. 이중 작년말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종신지구, 대창지구, 부안 대초지구는 최근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곧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북도 1인가구 시대… 정책 마련 시급”

### 국주영은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19일(전주9·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의 1인가구 비율이 2000년 17%에서 2010년 28%, 2020년 38.8%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임에도 전북도의 1인 가구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시급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주 의원은 이어,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전북도 1인가구 고용률은 56.5%로 부산과 대구



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을 위한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정

연령 이하 단독 세대주에게는 주택자금 대출에 장벽이 있고 가족 수에 따른 가점으로 주택청약에서도 불리하며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1인 여성 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주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겪으며 고독사

등에 대한 불안이 커져 건강복지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부터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팀을 가동해 소득·주거·인건·사회적 관계·소비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을 모색 중이고,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1인가구를 위한 간병·인정활동서비스 생활 지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1인가구가 급증하며 우리 인력상에 유례없는 압축적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이를 인식하고 타·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40시간 교육이수 후보자도 피선거권 제한?”

민주 전북지역 단체장 등  
 공천 배제 20여명 항의 나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과 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예비후보 경선 면접 등 공천에서 배제된 20여명과 그 지지자들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잘못된 처사에 대한 항의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제27조(자격)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받아야 하는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공천권을 배제(피선거권을 제한) 받았다”고 항의하며 “타 시·도당과 달리 인정기간을 지난 1월 14일부터 전국 유일하게 적용하도록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전북도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선거가 임박한 현재 이미 당의 직격탄을 통과하고, 각각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중앙당의 인정기간(2020년 1월부터 상시적용)과 달리 지난 1월 14일부터 온라인교육이수 인정기간으로 한다는 문자메시지로 당규를 위반 해 피선거권이 없음을 전화문자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과 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예비후보 경선 면접 등 공천에서 배제된 20여명과 그 지지자들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잘못된 처사에 대한 항의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도의회 교육위, 추경예산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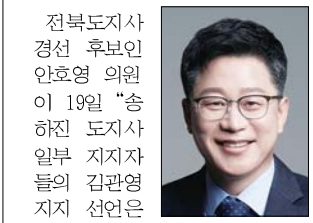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9일 제3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3조8,628억원 대비 2,093억원이 증액된 4조7,721억원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한 22개 교육복지사업에 1,684억 등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721억원은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송하진 지사 일부 지지자들의 김관영 지지, 송 지사 정신 훼손”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민주 안호영 의원  
 “측근이라면 도정 마무리 위해 전념해야”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19일 “송하진 도지사 일부 지지자들의 김관영 지지 선언은 송 지사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송하진 현 도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일부 인사들이 김관영 도지사 경선후보와 함께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며 “지지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행기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송하진 지사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을 떠난다거나 호적을 파고 원적을 파는 그런 비합리적이지 않은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안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의 정계 은퇴와 관련 “측근이라면 송 지사의 뜻을 받아 전북도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관영 예비후보를 겨

냥해 “2016년 1월 탈당시대를 주도해 더불어민주당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의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저격한 사람”이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김관영 예비후보는 삶의 경로와 이력의 결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송하진 지사는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관영 후보 또한 일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지사의 불출마를 요구하더니 송하진 지사의 비전을 계승한다고 말을 바꾸고, 이제는 송하진 지사의 뜻과는 반대로 일부 측근을 끌어붙여 공개 기자회견을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호영 의원은 “일부 인사들은 송하진 지사의 이름을 팔아서 잇속을 챙기려는 비겁한 행동에 당당 그만두어야 하고, 원칙과 철학이 없는 만남은 통일이 아니라 아합에 불과하다”며 “민주진보 진영의 본산이자 민주당의 보루인 전북에서부터 아합과 해질녘의 정치를 끝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 회복의 '지름길'